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20

“우리도 함께 뛴다”

남도의 불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짤주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짤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하이트 맥주·참이슬 소주로 ‘情나눔’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마당으로

■ 하이트진로 광주지점

“폐기의 광주! 변화의 광주! 하이트진로 파이팅!”

하이트 진로(주) 광주지점(본부장 정재덕)이 제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며 마련한 캐치프레이즈다. 지난대회 출전에 이어 두번째 출사표를 던지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 직원들은 이번 대회를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한 달간 부터 컨디션 조절에 들어갈 정도로 고무돼 있다.

정재덕 본부장은 새 봄을 여는 길목에서 열리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직원들과 하이트진로 정나눔 참이슬 봉사단원들이 함께 뛰며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은 ‘情 나눔 지역 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병당 2원씩 기금을 출연, 2억원 조성을 목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1월~2011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조성된 사랑기금은 1억 4200만원으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우리 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 45명과 직원으로 구성된 ‘하이트진로 情나눔 참이슬봉사단’은 2010년 조직돼 현재 5기가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2회씩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에 광주광역시 5개구청에 장학금 6000만원 지원, 광주전 가꾸기 사업 등 지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 진로(주) 광주지점은 올 광주전남에서 하이트맥주 86만 상자, 참이슬 소주 15만 상자 판매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정재덕 상무는 “광주전남에서 하이트맥주와 참이슬 소주가 각각 80%, 22% 판매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직원과 각오를 다지며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상무는 등산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젊은 직원들에게 뒤쳐지지 않고 완주를 자신하고 있다.

맥주부문 오문택 지점장은 조깅으로, 소주부문 성동욱 지점장은 조기축구등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상위입상을 노리고 있다.

특히 만능 스포츠맨으로 불리우고 있는 성



하이트진로(주) 광주지점 직원들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시·도민과 함께 즐거운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지점장은 이번 출전을 계기로 아직 녹슬지 않은 체력을 보여 줄 생각이다. 김진우, 박종호 영업파트장들도 조기축구로 다져진 체력으로 다음 대회에는 하프에 출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이트진로(주) 광주점은 주류회사 특성상 거의 매일 음주를 하면서도 건강을 잊지 않기 위해 전 직원이 야구, 등산 등 1인 1동 호흡 활동을 하며 꾸준한 체력관리를 하고 있어 단 한명의 나오자도 없는 완주를 자신

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情나눔 참이슬 봉사단’ 대학생들도 시·도민과 함께 새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즐거운 완주를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파도아 너는 아느냐, 우승컵 주인을” 9일 미국 캘리포니아 페블비치에서 열린 PGA투어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 15번홀에서 타이거 우즈가 바다 쪽을 향해 서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지동원 맞대결 성사될까

아스널·선덜랜드 FA컵 16강서 격돌

한국인 공격수들이 백업요원으로 뛰는 아스널과 선덜랜드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전에서 격돌한다.

선덜랜드는 8일(현지시간) 영국 미들즈브러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FA컵 32

강 재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미들즈브러를 2-1로 따돌렸다.

이로써 선덜랜드는 오는 18일 아스널을 훔구장인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로 불려 16강전을 치른다. FA컵은 단판 승부다. 아스널

은 지난달 29일 32강전에서 아스널 빌라를 3-2로 꺾고 16강에 선착했다.

선덜랜드에는 최연소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지동원(21)이 뛰고 아스널에는 국가대표 골잡이 박주영(27)이 뛴다. 그러나 둘 다 주전 경쟁에서 밀린 데다 백업요원으로서도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선덜랜드와 미들즈브러는 지난달 29일 대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이날 재경기를 하게 됐다. 이날도 승부는 연장까지 기는 접전을 펼쳤다.

/연합뉴스

맨유 300경기 ‘위대한 도전’

“박지성은 멈추지 않는다”

구단 홈피에 인터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유니폼을 입고 200경기에 출전한 박지성(31)이 300경기 출전기록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선언했다.

맨유는 9일 홈페이지에 지난 6일 첼시전에서 통산 200경기 출전을 달성한 박지성 인터뷰 기사를 올렸다.

박지성은 ‘박지성은 멈추지 않는다’는 제목의 이 인터뷰 기사에서 “처음 맨유에 입단했을 때 주변에선 내가 유니폼을 팔려 왔다고 주군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며 구단 내에서 달라진 자신의 위상에 민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아시아 선수들도 높은 수준의 유럽 축구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게 행복하다”며 큰 부상(무릎수술)으

로 많은 경기에 빠졌지만 마침내 200경기 출전을 달성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자평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를 꼽기가 어렵다고 한 박지성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다”며 “200경기 출전을 달성한 만큼 300경기 출전을 향해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성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그는 “맨유에 오기 전에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확신은 없었다”며 “퍼거슨 감독이 ‘나가서 싸워라’는 말로 용기를 줘 잉글랜드 축구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스크 1골 1도움... 바르셀로나 국왕컵 결승 진출

바르셀로나가 스페인국왕컵축구대회(코파델레이)에서 결승에 올랐다.

바르셀로나는 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프 누에서 열린 대회 4강 2차전에서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결승골을 터뜨리고

도움까지 기록하는 맹활약으로 발렌시아를 2-0으로 꺾었다.

바르셀로나는 4강 1, 2차전 합계 3-1로 발렌시아를 따돌리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발렌시아와 바르셀로나는 1차전에서는 1-1로

비겼다.

바르셀로나의 결승전 상대는 같은 프리메라리가 구단인 아틀레티코 빌바오다. 빌바오는 전날 4강 2차전에서 미란데(3부리그)의 돌풍을 잡아우고 결승에 선착했다.

코파델레이 결승전은 오는 5월 25일 열린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알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미센팅, 3M 코팅, 모비스 셱팅
- 맥카이어스 클릭, 코팅, 실내 클리너, 하부언더 코팅
- 만도네비케이션, 아이나비, 모비스 네이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DMB 샤크 안테나
- 자동차 경비 일체, 냉장고, 오일 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수입 타이어
- 천연 가죽 시트, 인조 가죽 시트, 수입 차 가죽 시트 제조
- 바디 방음, 전장 방음, HID 램프, LED 램프
- 이자카 도난 경보기, 후방 카메라

국내 최대 500명 판매

주차장 700명 주차 걱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 카메라 | 샤크 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트리트 버튼

